

CES 2026 Daily Report

DAY 2

SDV·로보틱스로의 대전환

모빌리티 경쟁은 SDV에서 로보틱스로 확대

로보틱스 생태계 선도 경쟁

CES2026에서는 현대자동차의 Physical AI, BMW의 차량 내 SDV, AFEELA의 UX 중심 SDV가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SDV 경쟁이 차량 성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정의 범위를 둘러싼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Partnering Human Progress

인간-로봇 협업 AI 로보틱스 생태계로 확장



휴머노이드 로봇 Atlas

→ SDV의 종착점: Physical AI



현대자동차 그룹 SDF 전략 제시

(로봇 '스팟' 이 제조공정 검증)

- ✓ 완성차 실물 전시 축소 대신 전면에 휴머노이드 로봇(e.g. Atlas) 및 기타 로봇 라인업(e.g. Spot, MobED)
- ✓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oftware Defined Factory, SDF)을 활용해 로봇 검증 및 AI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
- ✓ SDV를 로봇·스마트 팩토리·Physical AI로 확장

Day 2

AFEELA

Autonomy · Augmentation · Affinity
차량을 넘어 공간과 시간을 확장하는 디지털 경험



Sony Honda Mobility Afeela

- ✓ AFEELA의 SDV는 디바이스를 넘어 운전자가 머무는 디지털 공간으로 정의→ 주행보다 체류 경험에 초점
- ✓ SDV의 전시는 UX 에 집중
 - AFEELA 양산 예정 모델의 외관·차체 콘셉트
 - 인캐빈(In-Cabin) UX & 디지털 인터페이스
 - 센서·AI 기반 사용자 감정·상태 인지형 인터페이스

AI 로봇틱스 생태계 이끌어 나갈 핵심 제품·기술 공개

‘AI 로봇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 라는 전시 주제로
자동차 대신 AI 로봇틱스를 전면 배치하고 로봇 단품 전시가 아니라
제조-물류-점검-일상까지 연결된 AI 로봇틱스의
생태계를 실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테크랩(Tech Lab): 제조 산업 현장 투입단계에 근접

사람과 협업하며 부품 적재·정밀 조립·검수 작업 수행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



초기 연구 모델부터 현재까지
기술 진화 과정 전시



초기 연구 모델부터 현재까지
기술 진화 과정 전시

제조·산업 현장의 AI 로봇틱스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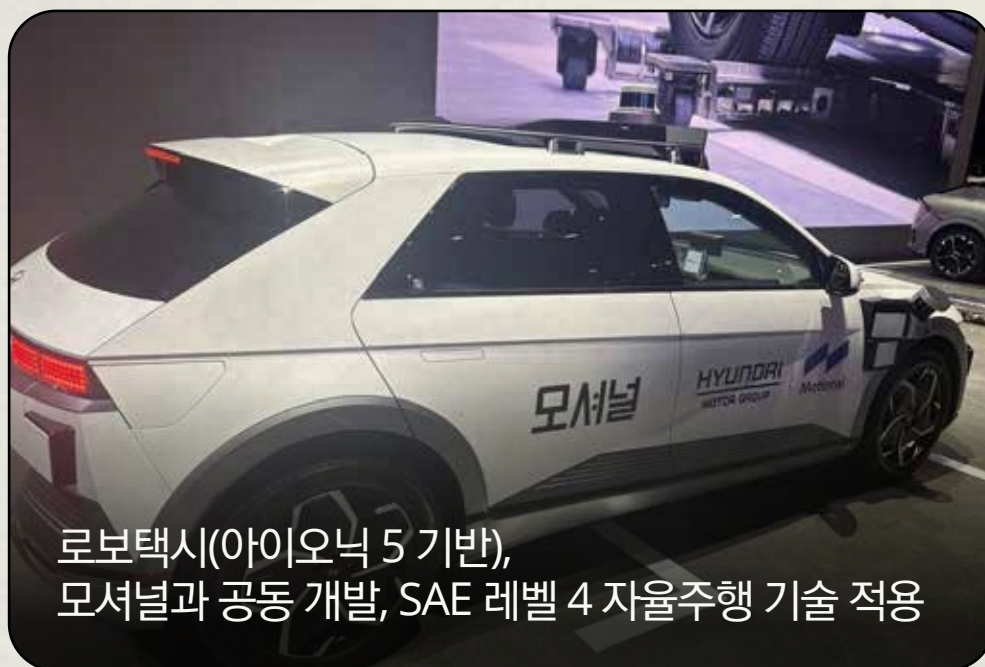
엑스블 숄더, 스팟의 산업 설비 점검·관리 자동화 시연



CES 2026 현대자동차그룹 전시관 전경

엑스블 숄더 (X-ble Shoulder)
무동력 구조, 근골격 부담 감소로봇개 '스팟'
문 개폐 확인, 열·진동 데이터 수집

일상과 산업으로의 확장

자율주행·전동화 × 로봇틱스 결합
(로봇 비전과 생태계 전략을 직관적으로 전달)MobED(모베드): Top Module 결합
콘셉트로 플랫폼화 전략 강조로보택시(아이오닉 5 기반),
모셔널과 공동 개발, SAE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적용



모빌리티 연결의 여정

열관리 시스템, 구동부품, 로봇을 하나의 모빌리티 생태계로 연결해 보여주는 전시 구성으로, 차량-제조-물류로 확장되는 현대위아의 사업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관리 시스템, 구동부품, 로봇을 하나의 모빌리티 생태계로 연결

차량 내부 경험(공조)



미래형 공조 시스템 (분산배치형 HVAC)

- ✓ AI와 센서를 활용해 탑승객 개개인의 체온·취향·환경을 인지하는 맞춤형 공조 기술
- ✓ 상부 루프 에어컨 + 스마트 벤트로 움직임을 따라 바람을 제어하고, 하부에는 온돌 개념의 복사워머 적용

주행 성능(구동)



좁은 공간 U턴 가능케 하는 미래 구동 부품 전시

- ✓ 듀얼 등속조인트(Dual C.V. Joint)세계 최초 개발
- ✓ ARS(Active Roll Stabilization), WDS(Wheel Disconnect System) 등 미래 구동 부품 전시

공장과 물류 로봇



제조·물류 로봇 플랫폼 'H-Motion'

- ✓ 자율주행 물류로봇(AMR)
최대 1.5t 적재,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 QR 가이드 주행, 모듈형 상부 장치

SDV의 두뇌: 차량용 AI·컴퓨팅 플랫폼 경쟁

NVIDIA

SDV는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판단·운영하는 Physical AI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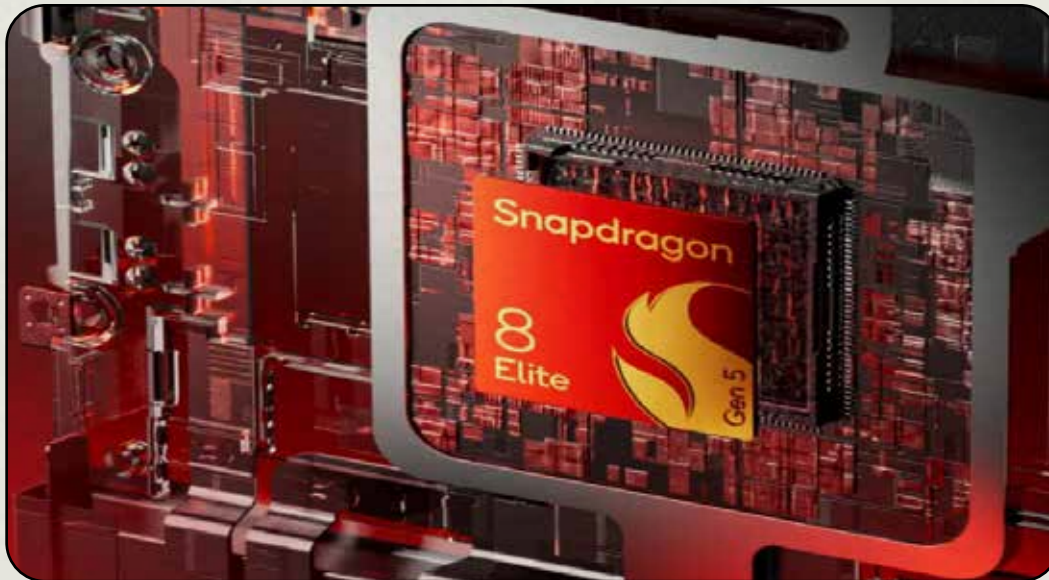


NVIDIA의 DRIVE Hyperion Platform Achieves

- ✓ NVIDIA는 SDV를 '차량용 컴퓨터'가 아니라 'Physical AI 노드'로 정의하고, SDV 구현을 위한 AI 플랫폼 전시
 - 차량용 AI 컴퓨팅 플랫폼(Drive 계열)
 - 자율주행 · ADAS용 AI 추론 스택
 - 로보틱스 · 시뮬레이션(Omniverse) 연계
 - 차량-로봇-가상환경을 연결하는 통합 AI 아키텍처

Qualcomm

SDV는 분산된 엣지 AI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플랫폼



Qualcomm의 AI Engine in Snapdragon 8 Elite Gen 5

- ✓ SDV는 하나의 거대한 칩이 아니라 연결된 SoC 네트워크로 정의

intel

PC와 차량을 재정의하는 범용 컴퓨팅 플랫폼



Panther Lake 'Core Ultra Series 3' CPU

- ✓ SDV를 위한 범용 차량 컴퓨팅 아키텍처
- ✓ 차량 전체를 하나의 IT 시스템으로 만드는 컴퓨팅 철학제시



CES 2026 현장 스케치

'CES 파운드리' 첫선... AI·블록체인·양자기술 한자리에

CES 2026에서 처음 공개되는 'CES 파운드리'는 7일부터 이틀간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기존 ICT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AI·블록체인·양자기술 등의 산업 적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합니다.



2026년 1월 7일(수)부터 이틀간
라스베이거스 폰텐블로 호텔에서 개최



프로그램은 전시 중심이 아닌
컨퍼런스 세션, 기술 데모, 네트워킹 행사로 구성



400개 이상의 컨퍼런스 세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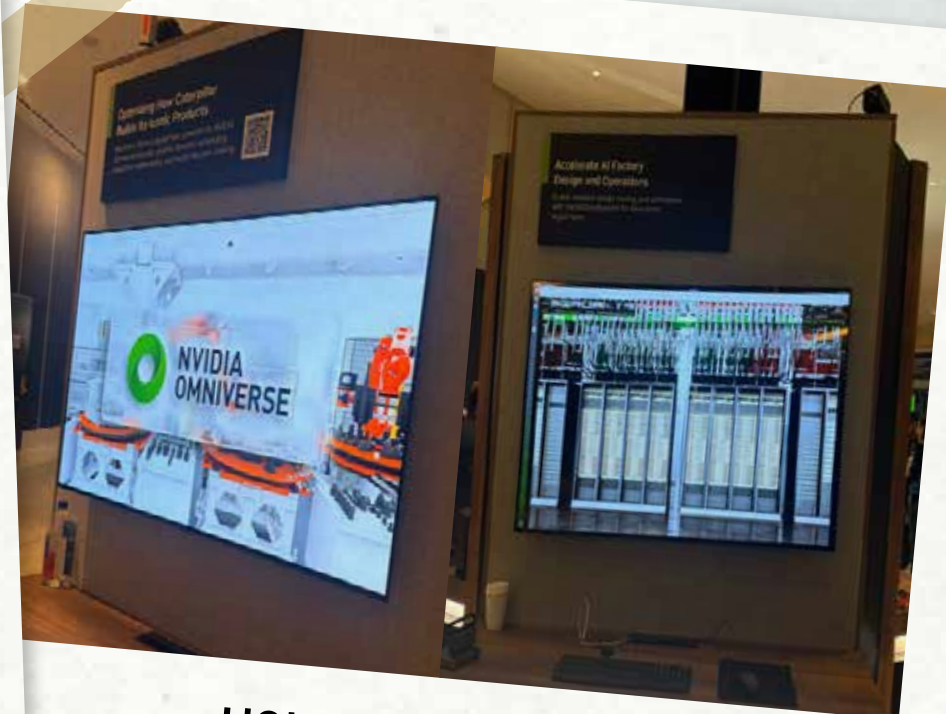
칩 메이커에서 현실 세계 구현에 나선 ‘엔비디아’

NVIDIA는 CES 파운드리에서 AI 컴퓨팅 스택부터 산업 디지털 트윈, 로봇틱스·자율주행까지 AI 개발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Physical AI’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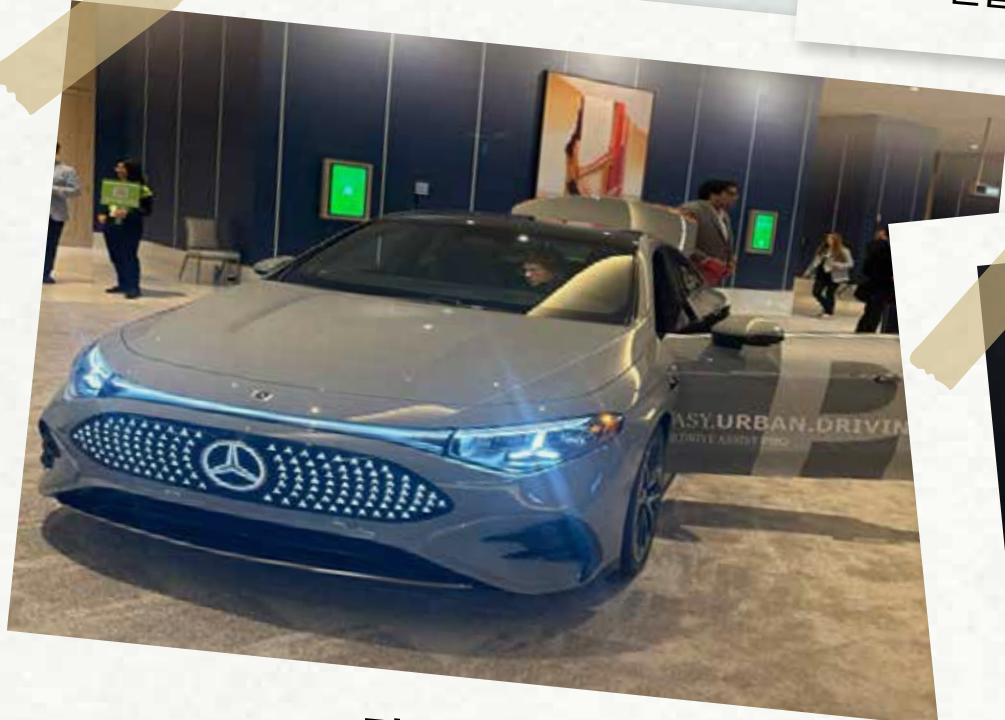
AI 컴퓨팅 스택 (Compute Layer)

AI를 대규모로 학습·추론·운영하는 표준 아키텍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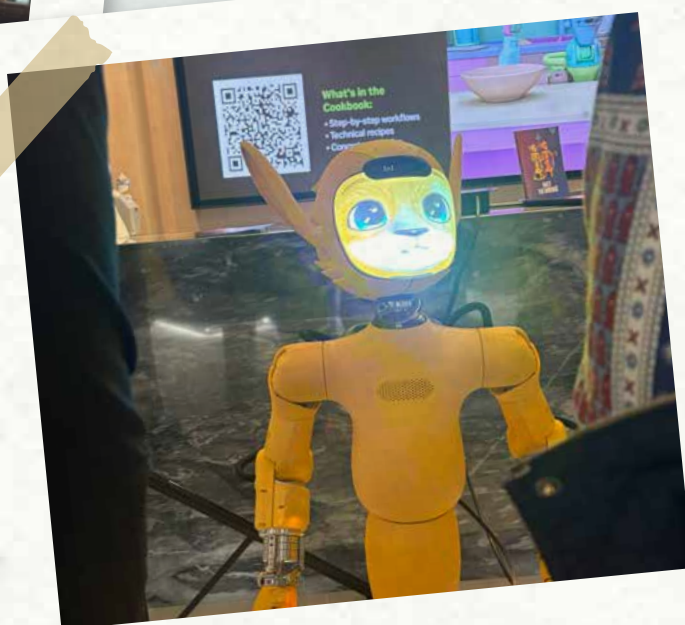
산업·제조 디지털 트윈

현실을 가상에서 먼저 실행하고 검증하는 운영 체계



자율주행차

움직이는 모든 것을 위한 Physical AI 플랫폼



AI 로봇틱스

움직이는 모든 것을 위한 Physical AI 플랫폼

기조 연설



조 크리드 (Joe Creed)
Caterpillar CEO

중장비에서 데이터· AI 기업으로의 전환

일시: 1월 7일 수요일 AM:9:00

장소: 베네시안(Venetian),
Palazzo Ballroom

핵심 주제 및 내용

✓ 100년된 중장비 기업의 정체성 변화

중장비 + 데이터 + AI 서비스의 결합으로 자율주행·
AI 기반 산업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 AI의 가치는 인간의 안전과 생산성 동시 실현

자동화 · 원격운영 · 자율주행으로 중장비 운용 현장의 문제 해소

✓ AI 경쟁은 소프트웨어·디지털 트윈에서 건설 · 광산 현장으로 이동

✓ AI·자율주행의 '승부처'는 산업 현장

AI 경쟁은 'Physical World'로 이동

✓ 제조·중장비 업체의 정체성 변화

중장비에 AI가 이식되면서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로봇으로 설계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배순한 **Director**

soobae@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